



평창·경북문경 조직위 '광주 배우기' 열풍
행자부·기재부 등 광주시 공무원들 환대
최윤희 합참의장 "국민에 희망" 감사 서한
중앙부처 공무원들 윤장현 시장 예우 극진

U대회 성공 효과 확 달라진 광주 위상

민진기 광주시에산담당관은 최근 행정자치부를 방문했다가 예전과는 다른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한다.

민 담당관은 "행자부를 방문해 시책 사업에 필요한 예산(특별교부세) 지원을 부탁하면 일반적으로 '예산도 없는데 뭐 하러 왔느냐'는 냉대를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데 지난주 방문에서는 오히려 행자부 공무원들이 '광주에서 작은 예산으로도 U대회를 잘 치렀다고 하더라'는 등의 덕담과 함께 긍정적으로 나와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올 9월께 집행될 특별교부세에는 광주의 예산도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면서 "U대회 이후 광주의 위상이 달라진 듯하다"며 활짝 웃었다.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부시장을 "올해는 국비확보 활동이 좀 수월한 느낌"이라면서 "기재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저비용·고효율로 U대회를 치러낸 광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퍼져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광주의 이미지가 U대회 성공 효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150만 광주시민이 하나가 돼 메르스 공포와 태풍, 북한불참 등 3대 악재를 딛고 역대 최고의 성공대회를 치러낸 '광주'의 힘이 정부는 물론 타 지역민들에게도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 등에 따르면 U대회가 폐막한 지 한 달이 넘어섰지만, 메르스 공포마저 잠재운 U

대회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물론 오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도와 평창, 오는 10월 열리는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등에서는 '광주 배우기' 열풍이 거세다.

이들은 경기장 시설을 최소화하고, 각종 물품 재할용 등을 통해 예산만 1999억원을 절감하고도, 역대 최고의 흥행대회를 치러낸 광주 U대회의 성공 노하우 분석에 한창이다.

대회가 끝난 후 광주에 대한 찬사도 줄을 잇고 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광주시에 감사서한문을 보내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합참의장이 광주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는 서한을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보내오기도 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서한에서 "메르스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에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는 물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으며 작전에 참여한 장병에게도 높은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윤장현 시장에 대한 극진한 '예우'도 눈에 띈다. 박근혜 대통령도 U대회 폐막 후 청와대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등 대회주역(450명) 초청 오찬을 갖고 "이번에 광주에서 보여준 시민정신은 앞으로 광주의 자존심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광주 정신을 극찬하기도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U대회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중앙부처 등에서 공직자들을 만나면 첫 인사로 '광주 U대회 성공 개최 축하한다', '광주 정말 대단하다', '메르스를 극복해 줘서 고맙다'는 등의 덕담을 듣고 있다"면서 "요즘 광주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南·北, 피 말리는 '밤샘 협상'

지뢰도발 사과·확성기 방송 중단
잠수함·폭격기 등 군사적 대치 속
일부 진전...합의는 여전히 '진통'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폭발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24일 서울째 강행군을 이어갔다.

〈관련기사 3·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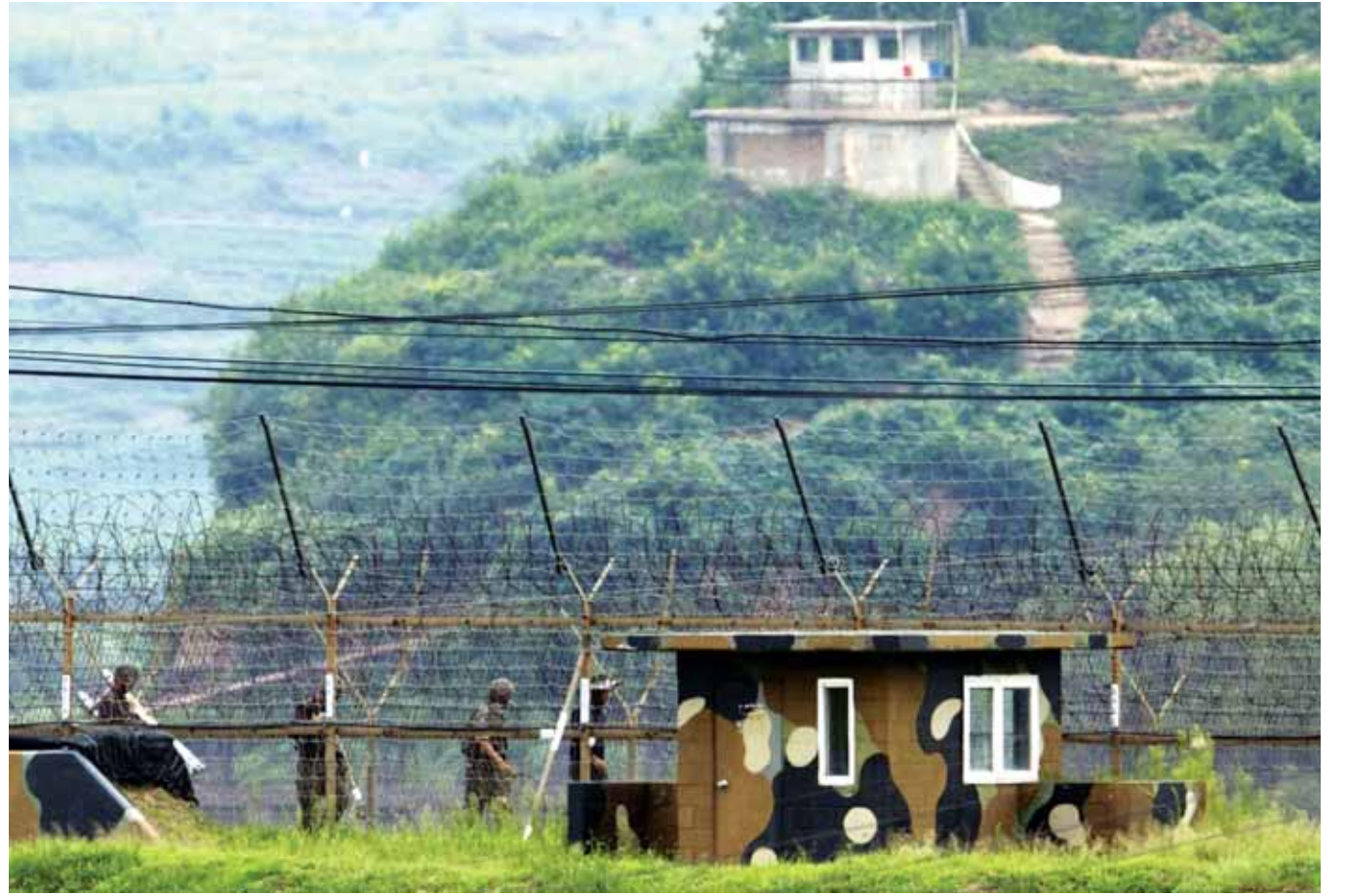
남북은 북한의 DMZ 지뢰도발에 대한 사과 혹은 유감 표명과 우리 군이 북한의 지뢰도발을 계기로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놓고 피 말리는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대표단은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23일 새벽 4시15분까지 10시간 가까이 무박 2일 협상을 벌였고, 같은 날 오후 3시30분 접촉을 재개해 24일까지 24시간을 이어갔다.

특히 밤샘 협상이 이들 연속 진행되는 것으로 볼 때 합의문안을 놓고 조율 중이라는 관측이 한때 제기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도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이틀 밤을 새워 논의했고 합의를 위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해 합의의 도출 가능성이 주목된다. 남북 대표단은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이외에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등의 남북관계 현안을 폭넓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양측은



지금은 대치 중

남북이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고위급 접촉을 재개한 가운데 24일 오후 서부전선 전방부대 경계초소 너머로 북한군 초소가 보인다. /연합뉴스

군사적 대치를 계속해 긴장이 고조됐다.

지난 20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이후 북한군의 핵심 3대 침투전력이 모두 소속 기지를 떠나 전방 등으로 전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북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은 준전시상태 선포 이후 평안북도 철산군의 모기지에 있던 공기부양정 20여 척을 서해 남포 해상까지 전진 배치했다. 이 중 일부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쪽으로 60여km 거리의 고암포로 이동할 움직

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한국은 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가운데 미국과 B-52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전개하는 시점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해남 관두산 풍혈·샘



완도수목원 가시나무 숲가마터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해남 관두산 풍혈·샘
완도수목원 가시나무 숲가마터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됐다

안내보호시설 등 국비 지원 ... 전남도 숲길 탐방로 개설키로

나라 최초로 양묘 생산한 묘목으로 가로수 숲길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역사성을 인정받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전남에서 유일한 풍혈인 해남 관두산 풍혈·샘은 1872년 호남읍지에도 기록돼 있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일전을 앞두고 마음을 가다듬었다고 전해 내려오는 등 유서 깊은 곳이다. 완도수목원 가시나무 숲가마터도 조선왕조실록(정조 18년)에 완도에서 숲을 생산해 우수영에 격월로 공납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지정된 3곳에는 안내 보호관 등 보호시설에 대한 국비가 지원된다. 전남도는 주변 수목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고 숲길 탐방로를 개설할 방침이다.

박근조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국가산림문화자산과 민선 6기 전남도 브랜드 시책인 '숲 속의 전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면서 "보류 처리된 나주 불회사 비자·차나무도 자료를 보완해 올해 하반기까지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6학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수시모집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원서접수 9.9(수) ~ 9.15(화)
전형일 10.2(금) 문의 (062) 605-1114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 빛을 거머쥐고
피부에 빛을 머금어 빛나는 것이 되자구요
속에서 어린 피부를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